

2010 Summer

Vol. 65

희망미소

www.kclf.org



Korea Childhood Leukemia Foundation
재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희망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세상



남궁 민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소아암 완치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소아암 진단과 기나긴 치료의 여정은 이들에게 있어, 삶의 가장 추운 계절 겨울과 같을 것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 힘든 소아암 어린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5개소에 치료를 위해 먼 거리를 오가는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편안하고 깨끗한 쉼터 「우체국 한사랑의 집」을 마련하여 학습지도·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뎌낸 봄꽃이 더 아름답듯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체국은 더 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의 쾌유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수정이의 꿈! 홍익대통령!

“엄마, 저 오늘도 일기왕 됐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선 나에게 던지는 수정이의 첫마디이다. “어이구, 귀한 내 새끼!”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데, 제법 통통하니 기분이 좋다.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수정이는 1학년 때처럼 반에서 1번이다. 키는 작지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톡 부리지게 말한다.

“나보다 작은 친구가 있는데, 선생님이 눈이 나빠서 나를 1번으로 하신 거야.”라고 말하는 수정이는 절대 기죽는 법이 없다. 수정이는 무엇을 해도 1등이다.

운동회 날, 선생님 앞에서 종알대고 있는 수정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어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눈앞에 희끄무레한 안개가 피어오른다. 건강해지고 나니 나도 모르게 자꾸 욕심이 생긴다.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공부도 조금만 더 잘했으면...’ 그러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내 자신을 다스린다.

‘무엇 그리 욕심을 부리나, 때가 되면 우리 수정이가 스스로 더 잘할 텐데, 지금도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다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수정이가 아프기 시작한 그때를 떠올리면, 온 몸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되어 있는 아픈 기억들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강인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울음을 삭히고 아이의 건강만을 생각했다. 아이에게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크게 웃었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내가 마냥 행복하고 편안해서 웃는 줄 알았다. 그래도 좋다.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백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 이 땅의 모든 부모 마음이 다 나와 같지 않을까?

지난 어버이날 수정이가 카네이션과 편지를 전해주며, 나의 무좀 걸린 발을 씻겨 주었다. 처음에는 일회용 장갑을 끼었다가, 나중에는 맨손으로... 그 작은 고사리 손이 가슴 아리게 귀엽고 예쁘다. 벌써부터 이런 효도를 받으니 무얼 더 바라겠는가?

홍익(弘益) 대통령이 꿈인 수정이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구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한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 같다. 그 소중하고 원대한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인 내 몫인 것 같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의 사랑과 격려만 있다면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믿는다. 나 또한 나의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신다. 나 역시 내 딸 수정이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 오래도록 수정이를 지켜주기 위해 우선 건강부터 챙겨야겠다. 지금 치료중인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아이가 건강해질 거라는 강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뜻을 품으라고! 그러면 하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 자리를 빌어 수정이의 건강을 기원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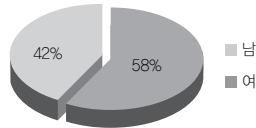
* 수정이는 2006년 4월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8년 치료 종결하였습니다. *

재단에서는 치료종결자 및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개발의 일환으로, 소아암 치료종결자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조사기간 : 4월 7일 ~ 5월 14일, 조사대상 : 17세 이상의 소아암 치료종결자 103명). 총 71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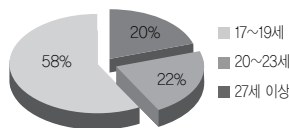
소아암 치료종결자 인식 조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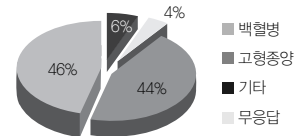
① 성별(비율)



② 연령(비율)



③ 진단명(비율)



2. 치료 관련 사항

① 치료 중 가장 힘들게 했던 주변사람들의 말이나 행동

가장 힘들게 했던 주변 사람들의 말, 행동	빈도(명)	비율(%)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때	22	31
없음	21	29.6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이라는 말을 할 때	10	14.1
기타	13	18.3
무응답	5	7.0

② 치료 중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항

치료 중 도움 사항	빈도(명)	비율(%)
가족들의 지지	35	49.3
치료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	19	26.8
의료진(의사, 간호사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	7	9.9
기타	8	11.2
무응답	2	2.8

③ 치료 후 후유증 (복수응답)

치료 후유증	빈도(명)	비율(%)
외형적 변화	41	57.7
다른 건강상의 문제	6	8.5
심리적 후유증	4	5.6
인지, 학습 등의 장애	7	8.1
후유증 없음	9	6.3

3. 소아암 치료종결자들의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소아암 치료종결자들이 생각하는 소아암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67.6%가 '사회적 낙인이 전혀 없다' 로 응답했고, 26.7%는 '사회적 낙인이 있다' 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각 문항별 분석결과입니다.

① 치료종결자들이 생각하는 소아암에 대한 낙인

문항	빈도(명)	비율(%)
소아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다.	17	23.9
소아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것 같다.	8	11.3
소아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나를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것 같다.	3	4.2

② 사회 제도의 필요성

제도	빈도(명)	비율(%)
장학금 제도	18	25.4
사회성 향상 등 상담 프로그램의 제도화	16	22.5
산업체 특별채용	12	16.9
대학특례입학	11	15.5
무응답	11	15.5
기타	3	4.2

③ 치료종결자들이 인지하는 소아암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생각

일반인들의 생각	빈도(명)	비율(%)
소아암 치료를 받았으면 보호해 주어야 한다.	29	40.8
소아암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17	23.9
소아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특별한 것은 없다.	7	9.9
소아암은 유전된다.	7	9.9
기타	7	9.9
무응답	4	5.6

④ 인식 개선 주제

인식 개선 홍보 주제	빈도(명)	비율(%)
소아암 아동들도 치료가 끝나면 다른 아동들과 똑같은 잠재력을 가진다.	32	45.1
소아암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다.	23	32.4
소아암은 유전되지 않는다.	7	9.9
기타	6	8.4
무응답	3	4.2



소녀, 어른이 되다...



신 세 정

1991년 10월 1일 생

2002년 8월 비호지킨림프종 진단

2003년 12월 치료종결

현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식품과학부 재학 중

평범한 아이에서 벗어나

진단 받기 전, 저는 매우 활발한 아이였어요. 오빠가 있어서 그런지 사내아이처럼 고무줄놀이보다 축구를 좋아했고, 인형놀이보다 로봇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언젠가부터 머리위쪽에 볼록하게 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머리에 지방이 찬 것이라고 제거하면 된다고 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병원으로 갔는데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병원생활을 떠올리면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컸던 거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치료받는 나를 보면서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이런 힘든 병원생활을 견디게 해준 힘은 음악이었어요. 병실은 매우 갑갑한 공간이었죠. 거의 우리는 매일 틀에 박힌 동선에서만 생활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해방감을 얻고는 했죠. 몇 달 간격으로 아빠가 새로운 CD를 사오셨는데 그때를 제일 기다렸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매일 병원에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저만의 취미를 개발했죠. 그 중 하나가 풍선아트인데요. 책을 보면서 독학한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병동에서는 최고의 실력이었어요. 그렇다보니 제가 무언가 만들 때면 어린 꼬마 친구들이 ‘저도 만들어주세요.’ 라는 눈빛을 쏘아 보내곤 했어요. 그 때,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친구들은 무엇보다 환한 웃음으로 값진 보답을 했죠. 때론 그 아이들의 부모님께서 맛있는 것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또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의 격려를 빼놓을 수가 없네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저의 말 상대가 되어주시고, 때론 영화를 노트북에 다운받아와 보여주시기도 하셨어요. 긍정적인 생각에는 힘이 있다며 부정적인 저의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이끌어 주시기도 했구요. 그 분들은 저에게 또 다른 친구였지요. 그 분들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1년 반이란 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리고 치료생활로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아팠던 시간들 덕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그리고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다시 평범하게 살아가기

치료가 끝나고 난 후에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었죠. 그래도 굳이 변화를 꼽자면 치료 받았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많이 변해버린 새로운 환경들 때문에 위축되어서 그런지 치료받기 전보다 훨씬 조용한 아이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두려움 반, 설레임 반이었죠. 솔직히 한동안 너무나도 새롭게 변해버린 환경 때문인지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치료 종결 하고 3개월 만에 학교에 들어간 터라 아이들과는 외모적으로 다른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 아이들의 시선은 따가웠죠. 좀처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부모님께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기도 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교생활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체력이 약해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팠던 제가 2시간 가량을 올라가야하는 산을 극구 말리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나 둘 노력해가니까 조금씩 친구들이 다가왔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암환자였던 일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쫄쫄”, “불쌍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작아지는 것만 같아서 싫었어요. 심지어 불쌍하다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꾀없이 이겨냈고 이 자리에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데 말이에요.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별을 받거나 매를 맞을 때 열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때마다 친구들이 작은 소리로 “재는 왜 별 안서?”, “재는 왜 안 맞아?” 말할 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해 달라고 부탁했어요(잘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고, 또 불쌍하다고 말할 때마다 태연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더 이상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웃으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다 나았다고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를 다독이며 굳세게 씩씩하게 저를 지켜낸 것 같아요.

스무살이 된 지금, 저는 굉장히 즐거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루하루가 특별하고 소중해요.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친구들과 새로운 경험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인 문제로 제가 원하던 대학, 원하던 학과에 입학하지는 못했지만, 난 젊으니까, 20대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경험을 해보면서 저의 진정한 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누구든 스스로 이겨내야 할 일들이 있기 마련이야. 지금까지 열심히 잘 싸워서 버텼듯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씩씩하게 잘 이겨내 보자. 나는 강한 사람이야. 안되면 되게 만들자구!”

치료중인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은 힘들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희는 할 수 있어. 긍정의 힘은 정말 존재하고 있단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너의 주위를 둘러봐. 많은 사람들이 널 응원하고 있어. 꿈을 가져! 그 꿈은 너의 미래를 만들어 줄 거야! 그깟 암 덩어리한테 너의 꿈을 뺏길 순 없잖아? 다시 웃으면서 일어서는 거야!



글·그림 소복이.
sobogi.net

자원봉사자탐구생활

앗! 이런!

오늘은 뭘 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나, 아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미리미리 아이들이 즐겨워할 아이템을 찾아 준비했어야 하는데, 시험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런 변명 따위는 아이들에게 통할 리 없어요.

지난 번 '슈퍼 개구리 멀리 날아가다' 만들기 시간이었어요. 만들기가 끝나고, 5살 승민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개구리 골수검사 했어요? 왜 하나도 못나는 거예요?”

10살 윤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정말 시시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잘 좀 준비해 오시지.” 오~, 마이 갓~. 아이들은 왕따파봉 냉정해요.

다시는 이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할텐데 난감해요.

아이들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급격히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앗싸라비아!

‘아이들의 환심을 살 때는 먹을 게 최고’라고 누군가 나에게 해준 명언이 섬광처럼 떠올랐어요. 살았어요. 오늘 만들기는 대충 비행기 접기로 때우고, 아이들과 즐겁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가는 길에 슈퍼에서 요즘 아이들에게 최신 유행하는 아이스크림을 정신집중해서 신중하게 골랐어요. 비닐봉지 한아름 아이스크림을 담아 쉼터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애들아! 이게 뭐지 알아? ㅋㅋ 아이스크림~! 우리 만들기 끝나고 같이 먹자!”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아이들이 합창을 해요.

“선!생!님! 우리 못 먹어요!”

아이들이 웅성대요.

“선생님, 정말 몰랐어요? 우리 항암치료 중에는 이런 것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꼭 참아야 해요!”

붕다리를 든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아! 봄 땅에 아지랑이 피듯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해 생음식, 우유,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과일, 불량식품 등등 함부로 먹지 못하고, 그래서 의식도 잘 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 급한 불 끄는데 급급해서 정신이 잠깐 외출했었나봐요.

오늘도 왕따파봉 냉정한 아이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 프로그램 준비는 사전에!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준비합시다!



이 시대의 진정한 나눔 실천가 - 토탈소프트뱅크

인연의 시작은?

과거 당사 직원 중 백혈병을 가진 자녀가 있어 이를 계기로 전 직원이 십시일반 조금씩이나마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긴 했지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보니 직원 모두가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고, 내 자녀, 내 동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직원 자녀 한 사람만이 아닌 우리 주변의 더 많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토탈소프트뱅크 직원들이 생각하는 나눔의 의미는?

나눔의 의미는 말 그대로 대가성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 임직원들 모두 우리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소중한 마음들을 간직하고 있으며, 특히 치료받느라 어린 나이에 포레 친구들과 공부도, 놀이도, 가족과 생활도 하지 못하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과 나눔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후원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조그만한 정성이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보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으나, 2년 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완치잔치에 초청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아암 어린이들이 완치되어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위대한 사랑을 느꼈으며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나눔의 소중함과 보람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에게...

내 가족, 본인이 아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날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 아이의 힘든 치료과정을 장기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고통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위에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며, 희망을 잃지 않기를 기대하며 마음속 깊이 격려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아암 어린이에게도 분명 희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힘내라고 응원해 주고 싶네요. 친구들아 모두 힘내~

* 토탈소프트뱅크는 2005년부터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

봉사는 나의 일부



나는 밴드 경력이 있는 대학생이다.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 등 밴드활동에 필요한 악기 대부분을 다룰 줄 아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밴드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자원봉사할 사람을 찾는다고 연락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순간 '취업할 때 봉사활동 확인서가 있으면 득이 되긴 할텐데... 근데 밴드는 왜? 어디 위문공연이라도 부탁하려나'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재단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소아암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끼리 뭉쳐서 밴드를 결성하려고 하는데 지도해 줄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모든 파트를 다 다룰 수 있는 내가 적임자라 생각하고 기꺼이 자원봉사활동을 수락했다.

작년 7월 친구들과의 첫 만남! 중1부터 대학생까지... 악기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피나는 연습과 노력 끝에 한음 한음 어우러져 소리를 낼 수 있게 되고, 또 합주라는 것이 수백 번의 반복을 통해 화합으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면서 아이들과 한 파트씩 말고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기타를 잡는 법부터 손모양, 자세, 소리 내는 법, 음계, 코드까지... 아이들은 자신이 희망하여 배워 서인지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열심히 연습에 임해주었다.

아이들이 손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행사에 초대되어 공연할 만큼 실력도 많이 늘었다. 아이들을 보면서 보람도 느꼈다.

처음엔 취업할 때 득이 되려고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봉사활동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고 그냥 내 일의 한 부분처럼 느끼면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드림밴드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봉사하려는 마음과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한 것이 바로 봉사라고... 그리고 봉사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이고, 만병의 약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음악이라는 아름답고 활기찬 취미생활을 통해 친구들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악기 연주에 몰입하다 보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도 다 있고, 소아암도 분명 다 나올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러고 보니 난 드림밴드 친구들을 만나 얻은 것이 더 많은 복 받은 대학생인 것 같다.

* 도상욱 자원봉사자는 2009년 7월부터 부산 우체국 한사랑집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한사랑의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한사랑의집

반짝반짝 심터 대청소



도배, 장판 교체로 어수선한 심터 청소를 위해 리바트 직원분들이 출동해 주셨습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고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묵은 때까지 말끔히 청소해 주셨답니다. 리바트 직원분들 덕분에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 봉사로 나눔을 실천 해주신 리바트 직원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고맙습니다.



어버이날을 이틀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종이 작업이 어려웠지만 자원봉사자 선생님과 함께 접으니 어느새 카네이션 완성! 아빠 엄마가 받으시면 좋아하시겠죠?

* 본 행사는 삼성SDS 푸른마을 봉사클럽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선물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할 초코렛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이라 원하는 모양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초코렛을 선물 받고 기뻐할 가족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만들었는데요~ 친

www.kclf.org

구들의 사랑까지 듬뿍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제 초코렛! 그 맛 너무 궁금하시죠?

* 본 행사는 삼성생명 여의도지점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설렘 가득한 봄나들이



4월 28일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 자원봉사자와 함께 송암천문대, 허브아일랜드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모처럼 나들이 나선 친구들과 가족들의 들뜨고 설레는 마음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도 감히 꺾을 수 없었습니다. 송암천문대 돛시어터에서 수없이 떨어지는 별도 보고, 허브아일랜드에선 잠을 잘 오게 하는 허브수양초도 만들었습니다.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해주신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본 행사는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구 우체국 한사랑의집

2010 한사랑 가족 자연체험



대구 한사랑의 집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소아암 어린이 가족들과 함께 경북 고령군 개실마을로 자연체험을 다녀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산들산들 봄바람을 선물 받은 참가 가족들은 갖익은 딸기 따기, 쫄쫄떡 만들기, 전통놀이, 대가야박물관 견학까지 이어지는 봄나들이를 맘껏 즐길 수 있었습니다.

* 본 행사는 대구이글로타리클럽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www.kclcf.org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행복한 가족나들이



5월 8일 전주 한옥마을로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 가족들과 함께한 봄나들이여서 그런지 살랑살랑 봄바람에 따스한 햇살까지 환상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명한 전주한정식으로 점심을 먹고, 한지를 이용해 보석함과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공예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흥겨운 농악놀이가 한바탕 펼쳐지고 있습니다. '딩덕쿵~ 쿵덕쿵~' 친구들에게 생소한 팽과리, 장구, 징소리가 민속마을의 정취를 더해주고, 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전주한옥마을 이야기는 마치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달아준 작은 카네이션, 공예체험 시간을 이용해 비밀스럽게 만든 아이들의 감사카드도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처럼 소아암 가족들이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 본 행사는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부산 우체국 한사랑의집

한사랑 교실

한사랑의집에서는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는답니다. 성악, 밴드, 이제 피아노 교실까지... 음악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의 병까지 치유한다고 하죠? 우리 친구들도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연속으로 GO!GO!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자연의 향기... 답답한 도시와 병실을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진행되었던 옛 만들기, 팔기체험, 도자기 만들기는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떠난 자연 속에서 행복충전하고 돌아온 친구들의 씩씩하고 밝은 모습만큼이나 행복한 날들의 기운을 가득 안고 돌아온 이날의 추억은 항상 기억될 것 같습니다.

* 본 행사는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가족의 달 5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각 병원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멋진 공연과 인형극, 마술행사로 병원에 있다는 것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이루어진 공연 중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드림밴드' 공연이었습니다. 드림밴드는 작년 8월 소아암 치료를 받은 친구들로 결성된 새내기 밴드입니다. 이날 공연에서 보여준 친구들의 모습은 프로밴드를 능가하였답니다. 치료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들의 바람처럼 많은 아이들이 드림밴드 공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 동부산대학 '꼭두각시' 동아리, 마술사, 드림밴드, 인형극단 '나무', 윤시훈 봉사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식비	치료비	간접치료비
<p>2010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송하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500만원 조인우(급성골수성백혈병/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 800만원 김수빈(급성이증표현형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제주) 1,500만원 최승빈(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인천) 1,500만원 이종민(유잉육종/서울아산병원/경남) 800만원 홍지연(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종/삼성서울병원/제주) 1,500만원</p> <p>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윤서(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서울) 1,000만원</p> <p>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서민재(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기) 1,000만원</p> <p>조희숙 후원자 송하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1,000만원</p> <p>토탈소프트뱅크 윤지후(상피세포종/국립암센터/부산) 500만원</p> <p>홍명보장학재단 윤지후(상피세포종/국립암센터/부산) 1,000만원</p> <p>익명후원자 주윤서(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서울) 500만원</p>	<p>2009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정슬비(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1,200만원 김정인(급성골수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광주) 1,200만원 차세주(골육종/삼성서울병원/경기) 1,949,315원</p> <p>2010MBC어린이에게새생명을 정다빈(수모세포종/국립암센터/경기) 800만원 김진성(림프종/한양대학교병원/서울) 1,200만원 배다혜(급성골수성백혈병/세브란스병원/서울) 800만원 은성렬(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1,200만원 임진형(뇌간신경교종/국립암센터/경남) 700만원 하지성(황문근육종/국립암센터/경기) 800만원</p> <p>드림팩토리클럽 이성미(면평상피암/서울성모병원/서울) 800만원 제정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한양대학교병원/대전) 200만원</p> <p>문근영기금 한창호(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아산병원/강원) 1,000만원</p> <p>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김하늘(중증재생불량빈혈/경북대학교병원/대구) 300만원 서민재(재생불량빈혈/서울성모병원/경기) 690만원</p>	<p>* 정기 간접치료비 (신규) 기업은행노동조합 매월 15만원 김민형(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전북) 노현서(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부산) 유아영(신경모세포종/서울아산병원/서울) 이정현(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서울) 임승빈(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경기) 장재혁(황문근육종/부산대학교병원/부산) 최현우(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전남)</p> <p>이용욱 개인후원자 매월 15만원 박지연(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인하대학교병원/인천)</p> <p>이경민포레 매월 20만원 남경민(난소생식세포종양/서울대학교병원/충북)</p> <p>* 일시 간접치료비 메리츠화재 각 100만원 이세빈(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서울) 김동근(순직결구빈혈/삼성서울병원/강원) 정수현(유잉육종/경북대학교병원/대구) 윤형우(뇌종양/서울아산병원/서울)</p>
<p>재활치료비</p> <p>해피빈재단 김지연(간모세포종/경북대학교병원/경북) 300만원</p> <p>KCMC 박도훈(유타스종양/서울대학교병원/서울) 400만원</p> <p>AFC(한불친선협회) 김예인(뇌종양/부산백병원/부산) 400만원 조범수(수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인천) 400만원 강중윤(골수이형성증/삼성서울병원/서울) 300만원 이예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300만원</p>	<p>삼성SDS 차세주(골육종/삼성서울병원/경기) 3,938,779원</p> <p>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추현서(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종/삼성서울병원/대구) 500만원</p> <p>이종원 전현우(전신성연소성황색육아종/영남대학교의료원/경북) 100만원</p> <p>한정민 기금 전현우(전신성연소성황색육아종/영남대학교의료원/경북) 2,397,140원</p>	<p>태진인터넷서날 각 100만원 서민경(뇌종양/삼성서울병원/경남) 이수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백병원/경기) 송하민(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경기) 김유진(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강원) 김준수(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성모병원/서울) 김단국(뇌종양/국립암센터/경남) 김도형(골육종/국립암센터/경남) 김민지(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부산대학교병원/경남) 손채희(황문근육종/서울성모병원/인천) 신민우(신경모세포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이상욱(신경모세포종/삼성서울병원/경기)</p> <p>한국농담발전 정하권(버킷림프종/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부산) 월 50만원(12개월)</p>



소아암어린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기후원

강상훈 공지연 곽영미 김경분 김남명 김동일 김두환 김민권 김성은 김성호 김성희 김수정 김승숙 김시영 김양수 김연화
김옥임 김은정 김정은 김정호 김정희 김준홍 김태진 김향숙 김현실 김혜성 김혜원 김효수 남귀숙 류충보 명윤정 문영미
민경수 박민호 박송수 박우민 박인실 박재세 박정선 박정호 박정화 박주리 박홍열 소 영 손성일 송예준 송은호 송호준
신영철 심혜림 양수열 엄정윤 예춘희 오춘섭 원동식 유경선 유승헌 윤경석 윤도선 이다현 이상웅 이선영 이승연 이영미
이은정 이장현 이정민 이정화 이정훈 이주연 이현영 임성자 전우현 정경아 정규섭 정미란 정선영 정재희 정주현 조명원
조성권 조연철 조영준 조용호 조원정 조현태 진수현 최선아 최은하 하은비 한채윤 허가은 허준무 홍석진 (주)윙하우스

일시후원

강민조 김기준 김대동 김정삼 김종환 김창만 김태안 김해자 류호성 민혜영 서아영 손현태 안성은 안소현 영아부 이대호
이한숙 이현아 임은정 정서진 정신숙 채혜원 한민희 허유림 황의선 후원자^^ 익명(광주양산) 익명기부 익명후원(국민은행)
익명후원(신한은행) 진주바이엘 참사랑봉사회 한국바이오인더스트리(주) (주)신일씨엠

사랑의 모음터

>> 후원물품

김민찬 떡케익 삼성생명여의도지점 프로그램비 제이솔루션 프로젝트&100인치스크린

>> 헌혈증서

김소현(1) 김정호(7) 김현제(99) 김홍민(99) 동부화재(100) 드림팩토리클럽(75) 단타이핑코리아(140) 리바트(41) 박용호(1)
부산체신청총무팀(210) 손영아(2) 윤소영(1) 자울소프트(16) 파파프로덕션(615) 하나병원(33) 한남대학교총학생회(109)

후/원/계/좌

국민은행 : 001-01-2353-890
농 협 : 029-01-176943

신한은행 : 140-000-762725
우리은행 : 112-04-112571

우 체 국 : 012989-01-003327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왕코의 유쾌한 암투병 일기

출판사 : 넥서스BOOKS
지은이 : 자오따비 / 옮김 : 은송희, 정선옥



» 소개의 글

스무세살의 열정적이고 활기찬 젊은이가 어느날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입원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좌절하고 힘들어할 만한 상황에서도 결코 웃음을 잃지 않고 유쾌하게 글을 써 내려간 대만 청년 왕코의 암투병 일기!! “즐거움이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유머가 암세포를 죽인다”는 모토 하에 만들어진 왕코의 책은 직접 그린 코믹한 그림과 함께 힘든 항암 치료 과정, 병원생활 그리고 환자의 고민을 솔직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고, 암투병 일기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암 관련 정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습니다. 두꺼운 책에 비해 내용은 재미있는 삽화가 그려진 짤짤막막한 일기 형식으로, 쉽고 가볍게 의학적 정보와 치료과정 중인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일기로 대만에서 일약 스타가 된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 지금은 중화민국암환자희망협회 희망대사로 활동하며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 책의 내용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양성종양이라면 별 문제 없어.....,평소에 별다른 증상도 없었고, 나이가 이렇게 젊으니 괜찮을 거야..’ 난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곁으로 다가온 의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암이라고 선고를 내렸다! 그 순간,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청천벽력’이 어떤 건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돌아서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았다. 마치 얼음물 속에 풍덩 빠진 것처럼 두려움과 놀라움에 몸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다.

나는 앞으로 2주일에 한 번 꼴로 모두 12번의 항암치료를 받아야 한다. 항암 치료를 다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반년이 소요된다.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나는 젊어서 그나마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한다. 절대 자포자기하지 말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와우!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다. 열두 번째 항암 치료를 끝마치게 되면 모든 치료가 끝난다. 그동안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왔다. 고통스럽고 온 나쁜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도록 하자! 이제야 한 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검사 결과는 다 좋게 나왔다. 열 두 번에 걸친 항암 치료를 통해 내 몸 속에 있던 종양이 모두 제거되어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단다. 앞으로 얼마 동안은 항암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와서 암의 재발 여부만 검사하면 된다.

저자소개

- 글 / 자오따비 - 23살의 활달하며 친구사귀기를 좋아하고, 여행과 음악을 좋아하는 혈기왕성한 사자자리 남자! 원래는 젊고 건강했는데.... 군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뛰어들 무렵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됨.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고통과 두려움을 즐거운 웃음으로 바꾸는 자세로 암을 이겨내고, 현재는 다시 열정적이고 활달한 열혈청년으로 돌아와 <중화민국암환자희망협회, 희망대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음.

» 희망미소 사진 콘테스트

소식지의 변신은 무죄! 알아채셨나요?

1992년 2월, '사랑이 있는 푸른우리마을'로 창간된 재단의 소식지가 9년 만인 지난 봄호부터 '희망미소'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소아암 관련정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소중한 이야기를 보다 더 생생하게 전하는 여러분의 '희망미소'가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희망미소' 사진 콘테스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여러분의 미소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응모대상** :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누구나
- **응모내용** : 희망미소를 주제로 한 사진 2장 (JPG파일)
- **응모기간** : 2010년 7월 1일 ~ 8월 2일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 cook@kclf.org (이름, 연락처, 간단한 사진소개도 함께 보내주세요)
- **발 표** : 8월 6일 개별연락

* 선정된 사진은 가을호 재단 소식지 '희망미소' 표지사진으로 사용되며,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 **전시기간** : 2010년 8월 25일(수) ~ 31일(화)
- **전시장소** : 경인미술관 제5전시관(중로구 관훈동 소재)
- **문의** : 희망美所 소아암센터 02)766-7671

» 개인정보변경 캠페인

'후원금은 이체되고 있는데, 잘 쓰이고 있을까?
'어!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하는데 기부금 영수증이 없네? 안 왔나?'

이런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후원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재단의 정확한 우편물(소식지,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등) 수령을 위해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변경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이사를 가고, 핸드폰 번호가 바뀌고, 이메일이 바뀌었다면, 지금 바로 재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후원자님의 개인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변경 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clf.org) 로그인 후 '나의정보'에서 개인정보 및 후원정보를 확인,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형제캠프 참가신청

제 10회 소아암 어린이 형제캠프 '우리가 만드는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형제캠프는 소아암 어린이의 형제들에게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 친구들과 다양하고 즐거운 활동 속에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스트레스도 맘껏 풀수 있는 형제캠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형제자매 (선착순 40명)
- **연령** :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 **일시** : 2010년 8월 17일(화) ~ 19일(목)
- **장소** : 부곡하와이(경남 창원군 소재)
- **참가비** : 1인당 10,000원
- **신청기한** : 2010년 7월 30일
- **신청 및 문의** : 대구 한사랑의 집 053) 253-7671
희망美所 소아암센터 02) 766-7671

소아암 완치자 연구 시작

재단에서는 연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아암 완치자 삶의 이야기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 시절 암을 진단받고 완치한 분들의 경험과 삶에 대한 이해를 높여 궁극적으로 소아암 환자와 완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소아암 완치자로 만 15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인 분은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뜻깊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참여기간 : 6월 ~ 7월
- 문의처 : 김민아 연구원(minahkim@usc.edu)
재단 사무국 02)766-7671

학습지원 시작

재단에서는 2008년도부터 소아암 어린이의 학습능력향상과 학습 습관 개선을 돕기 위해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0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총 2,400만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 본 사업은 우정사업본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제9회 희망나무심기



4월 9일, 소아암 어린이의 완치를 기원하는 '제9회 희망나무심기'가 영호화력본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

에는 소아암 어린이 가족 85명과 한국남동발전 임직원 자원봉사자 30여명이 함께 참여하여 나무도 심고, 이전에 심었던 나무에 거름도 주고 꽃도 심으면서, 완치의 희망을 키우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09 연간보고서 발행



재단에서는 지난 한 해,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안내드리고자 '2009년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연간보고서'를 제작하였습니다. PDF형식으로 온라인 배포하였으며 연간보고서를 보고 싶은 분께서는 재단홈페이지 희망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토토 자전거 지원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는 스포츠토토는 소아암 어린이 체력단련 지원 '자전거 타고 씽씽'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모형을 통해 2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50명의 소아암 어린이에게 자전거가 지원되었습니다. 치료 후 더 건강히 학교로, 사회로 돌아갈 소아암 어린이들의 체력증진을 돕는 스포츠토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호(Doho) 후원금 전달



(주)혜공의 Doho가 도호데이를 맞아 도호의 스페셜 아이템 판매를 통해 그 수익금 전액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부하였습니다. 김우중 대표는 도호데이를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도호의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아름다운 나눔활동에 감사드립니다.

www.kclf.org

메리츠화재 후원금 전달



메리츠화재는 지난 3월 희망美所 소아암센터에서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2008년부터

소아암 어린이들과 인연을 맺은 메리츠화재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나눔편드를 통해 급여의 일정부분을 기부하고, 회사에서도 임직원 기부금액 만큼 후원금을 쌓아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와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해왔습니다. 2010년에도 각 삼터별 설날음식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치료비, 형제캠프, 야외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메리츠화재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나눔에 동참하는 메리츠화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0 우정사업본부 공익사업 선정



지난 3월 12일, 2010년 우체국예금보험 공익사업 Kick off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0년부터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는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올해에도 우체국 한사랑의 집 운영 및 소아암 환자 치료비, 미술치료, 학습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으로 선정, 총 1억 9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우정사업본부의 지속적인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KCMC(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 후원금 전달



다국적기업최고경영자협회인 KCMC는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소아암 완치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완치자 자기성장 프로그램과 치료비를 후원합니다. 또한 CEO 추천 책도 함께 전달하였으며, 이 책은 전달식에 참석한 완치자 김현주 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국적기업 CEO의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숨을 쉬다, 미술치료 가족캠프



5월 15일 ~ 16일 '마음이 숨 쉬는 미술치료 가족캠프'가 도봉숲속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자녀가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후 병원 생활에 쫓기다 보면, 가족 간에 대화할 시간이 줄어들어 서로 대화를 하다가도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으로 소통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금번 미술치료 가족캠프는 가족 간 지지와 힘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부, 모, 아동, 가족 집단프로그램, 부모교육 등을 통해 참가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가족 간에 어려움을 나누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의 미소를 지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는
노랑 Reborn+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노랑 Reborn+ 캠페인이란?

노랑 _ 소아암 어린이의 희망
Reborn _ 건강히 다시 태어남
+ _ 당신의 나눔

소아암은 당신의 **나눔**과 **사랑**이 더해지면
건강히 완치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www.hello-reborn.org

노랑리본캠페인에 동참하시면,
노랑리본 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010년 여름호는  **동이제의약** 에서 제작지원해 주셨습니다.

발 행 인 / 오연천 편 집 인 / 서선원 발 행 처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주소 /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14 인설빌딩 4층 전화 / (02) 766-7671(代) 팩 스 / (02) 766-7674
 www.kclf.org  cancer@kclf.org